

# 창작의 시작, '드로잉'의 매력 속으로...

'드로잉'은 작품의 첫 시작 지점이 다양한 변주의 실험, 그리고 다채로운 형식의 생성 지점이기도 하다. 종이 위에 가볍게 그린 스케치, 작은 캔버스나 화판에 그린 회화·사진·판화·입체 등 다양한 매체만큼이나 드로잉 작품의 범주도 다채롭다.

나들이 가기 좋은 따스한 봄날, 다양한 드로잉 작품을 한데 모은 전시가 열리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예술공간집에서 열리는 '드로잉마켓 ON and On' 전시다. 국내외 작가 30여명의 50여점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드로잉'의 성격을 가진 작품들을 한데 모아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상상하고, 또 여러 작품을 비교해 보며 미술이 가진 다양한 즐거움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자리다.

'드로잉마켓 On and On' 전시를 기획한 예술공간집은 그간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기획전 등을 진행해왔다.

이번 드로잉마켓 전시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이 외부로 더욱 많이 알려지고, 또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을 지역 미술애호가들에게 적극 소개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온라인 마켓도 동시에 진행한다.

작품들은 갤러리 전시 오픈 이후 오는 16일부터 예술공간집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참여작가는 고차분·권예솔·김수진·김유섭·박치호·백미리나·서영기·신철·신호운·윤상하·윤준영·이건용·이매리·이세현·이인성·이조흠·임남진·임현재·정명숙·정승원·하루K 등이다.

그간 예술공간집과 꾸준히 활동해온 작가들뿐만 아니라 올해 전시가 예정돼 있는 작가들 비롯해 그간 광주에서 전시를 하지 않았던 작가들 작품까지 다채롭다.

## 28일까지 예술공간집 기획 '드로잉마켓 ON and On'



'드로잉마켓 ON and On' 전시 전경

## 故 김중만 사진부터 정직성·박치호·야요이 쿠사마 그림까지 회화·사진·판화·입체 등 다양한 드로잉 작품 50여점 한자리

우리나라 1세대 사진가 고 김중만의 사진 작품을 비롯해 푸른색의 강렬한 색감과 역동적인 붓터치가 돋보이는 정직성 작가의 회화, 지난해 전남도립미술관 대규모 전시를 연 박치호 작가 작품 등 지역 미술계에서 새로이 선보이는 작가군이 다수 포함돼 있다.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작은 소품에서부터 '호박' 작품으로 유명한 미술시장 블루칩 아티스트 야요이 쿠사마 회화까지 컬렉터들에게 기대감을 일으키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문화영 예술공간집 대표는 "변화하는 미술시장에 발맞춰가는 새로운 형식의 전시를 선보이고, 미술품 유통에 관한 고민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갤러리 공간과 함께 온라인 공간에서도 작품을 감상, 컬렉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과 국내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전시 문의는 예술공간집 (062-233-3342)으로 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 '인공지능·인간·다중우주'

# 'ACC 크리에이티브 레지던시' 국제 공모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융·복합 미디어아트 입주 작가 프로그램인 '2024 ACC 크리에이티브 레지던시' 참여자를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ACC 크리에이티브 레지던시'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창·제작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예술가, 전문가, 연구자, 엔지니어 등 창·제작자의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프로젝트 개발 및 제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공모 주제는 '인공지능·인간·다중우주'다. 인공지능과 인간 의식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인간·비인

간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세계와 우주가 작동하는 원리와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ACC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6월 8개팀(개인·팀)을 최종 선발한다. 참여자들은 오는 7월 말부터 4개월간 새롭게 바뀐 아시아창작스튜디오를 숙소로 사용하며, 창제작스튜디오(ACT 스튜디오)의 기계조형과 디지털미디어 등 기술 장비와 제작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ACC는 총 2천200만원의 프로젝트비와 창작 활동비를 지원한다. 또 리서치투어, 기술워크숍, 전문가 자문 등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ACC 창제작스튜디오

참여자들의 프로젝트 아이디어와 중간 제작과정은 오는 9월 말 개최되는 ACC 융·복합콘텐츠축제인 'ACT 페스티벌'의 크리에이티브 토크에서 소개된다.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지난해 열린 제16회 광주연꽃문화제 시상식 모습

## '꽃·나눔·약속'

### 제17회 광주연꽃문화제...오는 27일 상무시민공원

제17회 광주 연꽃문화제가 오는 27일 오전 9시 상무시민공원 야외무대에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사)동원, 광주전남 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이 주최하고 (사)동원 광주지부와 (사)동원어린이청소년연합회 광주지부가 주관한다.

연꽃문화제는 어린이들이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를 통해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매년 개최되는 어린이 문화축제의 장이다.

올해 행사 주제는 '꽃, 나눔, 약속'으로 글짓기(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

린다. 장지랑, 부스체림, 행운권 추천, 전래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참가자 준비물은 돗자리, 크레파스·물감 등 미술도구 및 필기구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까지 대상으로 하며, 그림 및 글짓기 부문에서 각 3명씩 시상한다.

장지랑 부문은 선착순 10팀 사진 접수를 받는다.

우천 시 행사는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다. 자세한 문의는 (사)동원 광주지부 (062-374-1311)로 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 광주문화재단-너와 필름 공동제작 '혼자'

## 25회 전주국제영화제 초청

광주문화재단이 2023 광주형상엔인 예술지원사업 일환으로 제작한 장애 인식개선 단편영화 '혼자'(감독 이경호)가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돼 상영된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 너와 필름이 공동 제작한 영화 '혼자'는 시각장애를 가진 주인공 선미가 갑자기 독립하게 되면서 북카페에서 일하던 어느 날, 말 없는 손님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이다.

이경호 감독은 장애인의 자립에 대해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일상적인 풍경을 일기처럼 그리고 싶었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는 역대 최대인 총 1천53편 작품이 출품됐으며, 이 중 공식 상영작으로 총 232편(국내 102편, 해외 130편)이 선정됐다.

단편영화 '혼자'는 국내 단편영화 50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혼자'

편 중 하나로 선정돼 '코리안 시네마 섹션'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전주국제영화제는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 내 상영관에서 관객과 만나게 되며, '혼자' 작품은 3일 메가박스 전주 객사 7관에서 첫 회 상영된다. 오는 6월 개최되는 제13회 광주독립영화제 '메이드 인 광주' 섹션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최명진 기자

## 우리 지역 분양 소식

비싸고 불안하기만 한 아파트 가격! 임대료가 답이다

영무에다음

현재 사전 청약 접수중 (특별혜택)

최고의 가치 명품의 가치를 그대로 누리는 10년 전세 아파트

1억7천대~ 영무에다음 더 퍼스트

페이스톤국제학교 2026년초 개교

달빛내륙철도 호재



TYPE 82A | 84B | 84C 문의 전화 1533-8321

HILLSTATE

삶이 예술이 되다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로얄층 마감임박

1,466세대 (구)33평형, 계약금 5%, 중도금 전액 무이자, 선착순 동 호지정

총 1,466세대 분양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중!!

총 1,466세대 84㎡, 102㎡, 112㎡, 157㎡ (2블록 785세대 / 3블록 681세대)

대표 전화 1533-8316